

전후 복구 시기 북한의 학교체육 연구 『교원신문』 학교체육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이성수(이화여자대학교)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전후 복구 시기에 발간된 『교원신문』 학교체육 기사 분석을 통해 해당 시기 북한의 보통교육 부문 학교체육의 내용을 밝히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우선 북한에서 사회주의 교육이 초석을 다져나가던 시기인 1950년대 체육교육의 모습을 재구성한다. 이 자료를 토대로 북한 당국의 체육교육 목표인 “전면적으로 발전된 건전한 일군” 양성 과정을 밝히는 동시에 북한 학교체육의 초기 모습을 찾고자 한다.

전후 복구 시기는 북한 당국이 전쟁의 혼란을 수습하고 사회주의 체계를 잡아가던 때이다. 이 시기 북한은 교육 부문에서 보통교육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이 급격히 팽창하고, 전쟁의 발발로 유보했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 교육의 기초를 다져나갔다. 특히 체육 교육에 있어서 해당 시기는 북한 당국이 전쟁으로 인해 약화된 인민의 체력을 회복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던 때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전 인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체육 활동을 권장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체육도 강화하는 노선을 추구하였다. 전후 복구 시기 북한 학교체육 연구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사회주의식 개조를 해나가던 과정에서 북한 교육의 한 면을 드러내는 작업으로서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북한 체육의 하위 주제로 다루어지거나, 정규 체육 교과목에만 주목해온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학교체육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그 내용을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교원신문』 학교체육 기사 분석을 통해, 북한

당국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건전한 일군’ 양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학교체육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흐름은 마침내 북한의 교육 이념과 원칙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전후 복구 시기는 북한 당국이 북한식 학교체육의 토대를 만들어가던 과도기적 시기였으며 이 시기의 특징이 이후 체육교육에서도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주제어: 학교체육, 전후 복구 시기, 북한, 교원신문, 전면적으로 발전된 건전한 일군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전후 복구 시기에 발간된 『교원신문』의 학교체육 기사 분석을 통해 해당 시기 북한의 보통교육 부문 학교체육의 내용을 밝히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후 복구 시기는 북한 당국이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주의 체계를 만들어가던 시기였다. 북한 역사에서 1950년대는 전후 복구 건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반종파 투쟁, 김일성 단일지도체계의 확립 등으로 대표되는 시기로 전쟁으로 인해 어려운 때였으면서도 정치·경제적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이렇듯 전후 복구 시기에는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중요한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외의 분야에 속하는 교육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전쟁의 상흔을 지우고 전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 개조를 시도했던 1950년대는 북한의 교육계에서도 중요한 시기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보통교육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이 급격히 팽창하고, 전쟁의 발발로 유보했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

교육의 기초를 다져나간 시기이기 때문이다.¹⁾ 특히 체육교육에서 해당 시기는 북한 당국이 전쟁으로 인해 약화된 인민의 체력을 회복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던 때이다.²⁾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전 인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체육 활동을 권장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체육도 강화하는 노선을 추구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신문 기사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역사에서 초기 체육교육의 모습을 밝힌다는 의의를 갖는다. 분석 자료를 토대로 본 논문은 북한 당국의 체육교육 목표인 “전면적으로 발전된 건전한 일군”을 양성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로 정립된 학교체육의 초기 모습을 찾고자 한다.³⁾

북한의 학교체육 관련 연구는 체육 전반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부 다루어지거나,⁴⁾ 주요 주제로 선택하더라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나오고 체육교육의 틀을 갖추고 난 1977년 이후의 내용을 분석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정리한 것임.

- 1) 이향규·조정아·김지수·김기석,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서울: 교육과학사, 2010), 109~118쪽.
- 2) “전쟁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인민들의 체력을 하루빨리 증진시키는 것은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과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 우리 인민과 청년들을 튼튼히 준비시키에 있어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조남훈, 『조선체육사 2』(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2), 136쪽.
- 3) 북한 당국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육체교양이 “전반적 교수 교양의 유기적인 일부분으로서, 자라나는 후대들을 지적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전면적으로 발전된 건전한 일군으로 양성하는데 그의 기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교원신문』, 1956년 5월 16일;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전후 복구 시기에 ‘육체교양’은 학교체육, 체육교육, 체육사업 등의 단어와 혼용되어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육체교양, 학교체육, 체육교육, 체육사업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것을 밝힌다.
- 4) 김동선, “북한 체육의 기본원리와 특성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이학래·김동선, 『북한의 체육』(서울: 사람과 사람, 1995); 성문정, 『북한의 체육실태』(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대상으로 하였다.⁵⁾ 또한 정규 체육수업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나오기는 했으나⁶⁾ 이런 연구는 북한 당국이 과외체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활발히 전개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북한 당국이 학교체육의 틀을 정립해가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정규 수업을 비롯해 북한 당국이 학교체육의 범주로 다루고 있는 체육 활동 전반을 연구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학교체육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전후 복구 시기 북한의 교육 전문 주간지인 『교원신문』에 실린 학교체육 기사를 중심으로 『교육학』, 『체육교수법』과 같은 북한의 체육교육과 관련한 단행본과 『인민체육』과 같은 체육 관련 간행물, 『조선체육사 2』, 『광명백과사전 20: 체육』과 같은 북한의 체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단행본을 참고하여 당시의 체육교육 모습을 재구성한다. 『교원신문』은 그동안 북한의 학교체육 관련 연구에서 아

-
- 5) 공기화, “북한의 학교체육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 논문집』, 제31권 1호(1995), 291~314쪽; 신문선·김남주, “북한 고등중학교 체육의 성격 및 특징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1권 1호(2002), 155~166쪽; 이은정, “북한의 학교체육 관련 신문기사 내용분석”(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현주·김동선, “북한 청소년들의 과외체육소조 활동의 변화,” 『체육사학회지』, 제19권 2호(2014), 159~174쪽 등.
- 6) 박진권, “남북한 학교체육의 비교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제7권 1호(1998), 433~448쪽; 이종목, “남북한과 일본의 체육과 교육과정에 관한 비교연구”(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김남주, “남북한 체육교육 분석을 통한 이질화 극복방안”(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공기화·김수봉, “남북한 간의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비교연구,” 『초등교육연구』, 제21권(2006), 95~144쪽; 김홍태·김동선, “남북한 학교체육의 특성 비교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5권 1호(2006), 461~473쪽; 이학래·김동선·김현석·이희근·박승범, 『남북한 체육행정 비교연구』(서울: 광림북하우스, 2007); 김희수, “남북한 간의 체육교육과정 비교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16권(2010), 105~149쪽 등.

직 다루지 않았던 자료이다. 신문은 “교육정책담당자와 교육행정관료들의 정책지향적 내용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교장·교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 및 학교와 교실 내부의 모습 등을 드러내주는 유용한 1차 자료”로서 교육 현장의 모습을 제약적이나마 드러낸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⁷⁾ 따라서 이 연구가 그동안 북한 당국의 정책과 그 의도 파악에 주목했던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부분적이라도 북한의 학교체육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생산해낼 것을 기대해본다.

2. 북한 학교체육의 형성과 변화

해방 직후 북한 당국은 35년간의 일제 잔재 청산과 사회주의 교육 개혁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교육 체계를 개편하였다.⁸⁾ 이 과정에서 전쟁으로 인해 잠시 중단이 있기는 하였으나 일부에게만 한정되었던 학교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큰 흐름은 유지되었다. 북한의 학교체육은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북한 당국의 교육개혁 및 개편과 함께 변동하였다.

북한의 학교체육은 정규 수업과 과외체육 활동이라는 두 측면으로 발전해나갔다. 먼저 해방 이후부터 전후 복구 시기까지 정규 체육수

7) 신효숙,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統一政策研究』, 제15권 1호(2006), 137쪽.

8) 해방 이후부터 전후 복구 시기까지 북한 교육의 형성 및 변동은 김형찬 편, 『북한의 교육』(서울: 을유문화사, 1990); 이향규·김기석, 『북한사회주의 형성과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1999); 이향규·조정아·김지수·김기석,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 등 참조.

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당국은 1945년 발표한 ‘북조선 학교교육 임시조치 요강’으로 정규 체육수업을 인민학교는 주 3시간, 고등중학교는 주 2시간을 배정하였다.⁹⁾ 인민학교 고등과 여학생에게는 남학생보다 1시간 적은 2시간을 배정하는 한편, 고등중학교 여학생에게는 체육수업을 배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총 수업시간에서 체육시간 비율은 인민학교는 10%, 중등학교는 5.7%를 차지하였다.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조선 학교교육 체계에 관한 규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정규 체육수업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 조치에 따라 1947~1948학년도 인민학교 체육시간은 1시간이 줄어든 주 2시간이 배정되었다. 그 결과, 체육수업은 전체 수업시간의 1.47%를 차지했다.

1948년 북한 정권이 공식 출범하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그 당시 교육과정에서 체육시간은 인민학교의 경우 주 2시간이 배정되었다. 당국은 초급중학교의 경우 주 2시간, 고급중학교는 1~2학년은 1시간, 3학년은 2시간을 체육시간으로 배당하였다. 이 시기 정규 체육수업 시간은 주당 1~2시간 정도에 머무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일반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 당국이 과외체육을 적극 장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 체육수업 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¹⁰⁾

전쟁 후 내각결정 제111호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개편에서 체육시간은 인민학교의 경우 주 2시간씩 배정되어 4년간의 총 수업시간 중 7.92%가 체육수업에 해당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초급중학교는 주 2시간씩 총 178시간으로 총 수업시간의 5.34%를 차지하였다. 고급중

9) 신효숙,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150~154쪽.

10) 이학래·김동선·김현석·이희근·박승범, 『남북한 체육행정 비교연구』, 167쪽.

학교는 주당 2시간을 배정하여 총 198시간이었는데 총 수업시간의 5.77%에 해당하였다. 체육수업 시간은 북한 교육성이 1955년에 다시 한 번 학기 구분과 학기별 수업 일수를 개편하면서 변동하였다. 이때 인민학교 체육수업 시간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초급 및 고급중학교는 무용 등 관련 과목이 생기면서 체육관련 수업 시간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¹¹⁾ 그 결과, 중학교 체육수업 시간은 전체 수업시간의 12.7%에 해당하는 859시간을 차지했다. 이처럼 체육교육의 수업시간 배정은 대체로 주 2시간이었음에도 총 수업시간 중 체육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1956년 내각 명령 제14호에 따라 정규 수업시간 외에 체육교육에 할당된 시간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기술교육 강화를 목표로 단행한 1959년 교육개편에서 체육수업은 인민학교의 경우 이전처럼 주 2시간이 배정되었는데 여기에 각 학년마다 보건 1시간을 추가하였다.¹²⁾ 기술학교의 경우 총 1663시간 중 170시간을 체육수업으로 배정하여 체육시간의 비중이 약 10.2%에 달했으며 고등기술학교는 1250시간 중 240시간을 체육에 배정하여 비중이 약 19.2%로 총 11과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해방 이후부터 전후 복구 시기까지 체육교육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정규 교육과정은 한 주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를 배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원신문』에 실린 체육수업 관련 기사에는 주어진 시간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관련 기사에는 체육수업을 부수적인 과목으로 생각하여 쉽게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교수 요강이나 지도안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

11) 이학래·김동선·김현석·이희근·박승범, 『남북한 체육행정 비교연구』, 168쪽.

12) 장경표, “남북한 초등(인민)학교 체육교육에 대한 비교연구”(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37쪽.

고 수업을 대충 진행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의 학교 체육 강화 노선이 학교 일선에서는 의도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부 일군들 중에는 학교 체육 사업이 가지는 교육 교양적 의의를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이를 차요시하여 《부차적인 과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 체육 사업이 노는 대중적 역할을 무시하고 일부 국한된 학생들의 전문적인 체육 기능 발전에만 치중하려는 아주 옳지 않은 경향도 있다. 이렇게 체육 사업에 대하여 부당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일부 교원들은 교과 과정안에 제시되어 있는 교수 시간을 교수요강에 의거하여 엄격히 집행할 대신에 우선 시간수도 랑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장한다 하여도 교수 요강을 연구하지 않은 데로부터 생각나는대로 교수 요강에 없는 교재를 제멋대로 취급하고 있다.¹³⁾

반면에 과외체육 활동은 점차 강화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북한 당국이 1945년 11월 발표한 ‘북조선 학교교육 임시조치 요강’은 정규 체육수업 외에 단체경기를 적극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과외시간을 통해 체육 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948년 공식 출범한 북한 정권은 과외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1948년 8월에 김일성은 대동군 재경인민학교를 현지지도 하면서 학생의 과외체육과 예술활동을 강조하였다.¹⁴⁾ 같은 해에 인민체력검정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과외 시간에 체력검정 합격을 위한 훈련을 조직하였다.

13) 『교원신문』, 1955년 4월 13일.

14) 조남훈, 『조선체육사 2』, 94쪽.

1954년 내각 직속 체육위원회가 마련한 ‘1개년 체육사업계획’은 학교에서 집단체조 훈련을 조직하고 인민체력 검정 실시와 같은 사업을 계획하였다.¹⁵⁾ 1956년에는 내각 명령 제14호에 따라 각지 학교에서 체육일을 정해 체육 활동을 독려하였고, 매일 1~2시간 정도 과외 체육 활동을 조직해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업 전 실시하는 조기체조와 휴식 시간에 실시하는 업간체조에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1959년에는 ‘인민체력 검정 주간’을 도입하여 해당 주간을 비롯하여 학생이 일상적으로 체력검정에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조직하였다.

북한의 과외체육은 1962년 5월 청소년 교양사업의 개선 강화에 대한 김일성의 교시가 내려진 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시에 따라 학생의 정서와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하도록 정책적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외체육을 강조하는 북한 학교체육의 특성은 앞서 살펴본 바처럼 해방 후부터 1950년대를 지나면서 발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3. 전후 복구 시기 북한 학교체육의 특징

1) 학교체육의 형식적 특징

(1) 체육의 대중화 · 생활화와 학교체육

전후 복구 시기 북한의 학교체육 정책은 북한 당국이 해방 후부터

15)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20: 체육』(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8), 161쪽.

16) 이학래·김동선·김현석·이희근·박승범, 『남북한 체육행정 비교연구』, 175쪽.

추진해온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정책 연장선상에 있었다.¹⁷⁾ 『교원신문』 학교체육 기사에 따르면 학교체육의 목적은 “전체 학생들을 건강하고 유능한 학생들로 육성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만큼 학교에서 체육을 대중화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 목표”이다. 북한 당국은 기본적으로 매주 1~2시간 체육수업을 실시하는 한편, 과외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이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은 매주 1일 이상을 체육일로 정할 것, 과외 시간을 이용해 학생이 1~2시간 체육 활동에 참여하게 할 것, 방학을 이용해 수영, 야영, 행군, 명승지 및 고적 탐승 사업을 조직하고 실시할 것 등 일상적으로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⁸⁾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방침은 1950년대 후반 사회주의 경쟁운동으로서 북한 전역에 걸쳐 진행하였던 천리마운동의 영향을 받아 군중체육의 성격을 더하였다.¹⁹⁾ 체육의 대중화가 일부 계층에게만 집중된 체육을 지양하고 전체 인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었다면, 군중

17) 체육의 대중화와 생활화는 북한 당국이 해방 이후부터 체육 정책을 전개하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김일성은 1946년 10월 6일 체육인대회 연설에서 그동안 체육이 “특권계급의 놀음거리로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복무하기 위한 전투훈련”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체육을 “민주조선을 건설할 씩씩한 건국투사들을 키우기 위하여 인민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련시키는 전인민적 체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김일성은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여 광범한 대중 속에 널리 보급하여야만 우리 민족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튼튼한 체질과 건강한 사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늘 체육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하며 대중 속에서 체육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래·김동선 엮음, 『북한 체육 자료집』(서울: 사람과 사람, 1995), 273~275쪽.

18) 『교원신문』, 1956년 3월 3일.

19) 홍성보,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 과정(1945~1970): 국가전략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08쪽.

화는 여기에 집단주의 성격이 강한 체육 활동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었다. 1959년 1월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군중체육 사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며 스포츠 기술수준을 제고할 데 대하여’는 북한 체육이 군중체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 학교체육에서 군중적 체육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²⁰⁾ 1959년에는 도, 군 단위를 비롯해 각지 학교 단위로 천리마체육협회가 결성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집단 달리기 같은 군중체육 사업이 더욱 활발히 조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²¹⁾

실제로 전후 복구 시기에 실시한 학교체육을 살펴보면 학교 시스템 안에 있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북한 당국은 집단 유희나 등산, 원족, 행군, 사냥, 야영, 체조, 달리기, 운동경기 등을 조직해 참여 학생이 기본적인 체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만큼 동지애와 협동심 등 집단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이끌어갈 학생을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신체로 단련시키고 전체의 일부로서 집단주의 정신을 몸으로 체득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학교체육 활동은 정규 수업과 과외체육 활동을 포괄하여 일

20) 『교원신문』, 1959년 4월 25일.

21) 1950년대 군중체육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이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은 부문별 체육협회와 종목별 체육협회의 정비였다. 1959년 3월부터 6월 까지 부문별 체육협회 창립을 위한 회의가 열렸으며, 그 결과 학교 부문에서는 천리마체육협회가 신설되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1959년 10월에 천리마체육협회 중앙위원회 산하에 11개 도 체육협회와 189개 군 체육협회가 조직되었고 100여만 명의 청소년 남녀 학생들이 소속되었다. 홍성보,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 과정(1945~1970):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121~122쪽; 『교원신문』, 1959년 10월 7일.

간, 주간, 연간으로 구성이 가능할 만큼 학생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해당 시기 북한의 학교체육 활동을 하루 단위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당국은 체육처 학교체육부를 통해 학생이 조기체조와 수업 전 체조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지침을 주었다. 이 시간은 인민보건체조, 소년단체조, 청년체조 등 학생이 이미 잘 아는 체조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규율성과 조직성을 함양하고자 했다.²²⁾ 1959년에 인민체력검정 주간을 도입한 후에는 매일 아침 조기체조를 마치고 검정에 합격하기 위해 훈련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²³⁾ 수업 사이 휴식 시간에는 업간체조를 비롯해 운동 유희, 뽀뿌기 운동, 걷기, 달리기, 오르내리기 등을 실시하였다.²⁴⁾ 방과 후에는 소년단 체육모임이나 체육 크루쇼크를 통해 각종 구기종목 경기를 진행하였다.²⁵⁾ 인민학교에서는 교원이 학생들을 조직해 집단 유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과 후에 인민체력검정 합격을 위한 훈련을 조직해 체육 교원의 지도 아래 1시간 정도 실시한 모습도 보였다.²⁶⁾

22) 『교원신문』, 1954년 3월 22일.

23) 『교원신문』, 1959년 10월 10일.

24) 學友書房 엮음, 『体育教授法』(東京: 學友書房, 1966), 57쪽.

25) 크루쇼크(кружок)는 소조라는 뜻으로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적은 집단”을 말한다. 『교원신문』 관련 기사는 크루쇼크 사업이 “학생들을 더욱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로운형의 인간으로 교양”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목적은 “아이들의 생활을 진정으로 문명적이며 그들을 새롭게 집단에서 생활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며 아동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더 연구하며 생활에 접근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전한다. 전후 복구 시기에 북한 당국은 물리, 수학, 향토 연구, 식물, 음악, 체육, 문학, 공작, 위생 크루쇼크 같은 활동을 조직한 것을 확인하였다. 김상현·김광현, 『대중 정치 용어 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302쪽; 『교원신문』, 1954년 7월 5일; 『교원신문』, 1957년 11월 30일.

26) 『교원신문』, 1959년 12월 5일.

한 주를 단위로 살펴보면 일주일에 1~2시간에 해당하는 체육수업 시간 동안 체력단련을 실시했다. 이에 더하여 일주일에 1~2회 정도 체육의 날을 정해 학생이 의무적으로 과외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의 날 참여 여부는 체육과목 평가 항목 중 하나였다. 행사 참여 여부가 점수로 환산되어 평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이 반드시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⁷⁾ 한 해를 단위로 학생의 체육 활동을 살펴보면 계절별로 봄과 가을에 운동회가 열렸고 여름에는 수영, 겨울에는 스케이트, 스키, 팽이 돌리기, 연날리기, 눈싸움 등 각 계절에 맞는 활동을 실시하도록 독려했다.

방학 기간 중에도 다양한 과외체육 활동을 조직하였다. 마을 단위로 조직된 민청과 소년단 반별로 매일 조기체조를 진행하고 체조가 끝난 후에는 이들에 한 번씩 1000m 거리 행군과 마을 청소를 진행하였다.²⁸⁾ 열성 학부모형으로 이루어진 ‘교외 (학생)생활 지도위원회’에서 매일 아침 학생이 조기체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방학 간 야영을 조직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²⁹⁾ 체육절이나 전국 체전과 같은 국가 단위 행사가 열릴 때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후 복구 시기 학교체육 사업은 보건·위생 사업과 함께 취급되는

27) 『교원신문』, 1955년 3월 30일.

28) 『교원신문』, 1960년 1월 20일.

29) ‘교외 (학생)생활 지도 위원회’는 1958년 교육문화성령 제 17호에 근거해 리(동)를 단위로 조직하였다. 위원회는 “리(동)의 당 단체, 정권 기관, 사회 단체, 열성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조직하였으며 7~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학교와 가정,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영향의 통일을 기하며 교외에서 학생들의 생활을 옹기 조직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교육 교양의 목적을 더욱 원만히 달성”하는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교원신문』, 1958년 4월 2일.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학생에게 청결이나 위생과 같은 규율을 내면화 하도록 하고 이것이 일상적이면서도 자발적인 통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체육의 생활화 맥락에서 함께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시기 학교에서는 체육수업 시작 전에 학생의 위생 상태를 검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생 상태 관리는 학생의 복장 검사와 청결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1~2번 위생의 날을 정해 위생 검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³⁰⁾ 위생적인 측면도 체육과 평가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학생은 평소에 스스로 청결을 유지해야 했다.

(2) 조직단체를 통한 학교체육 활동

전후 복구 시기 북한의 인민학교와 초·고급 중학교에서 학교체육 활동은 소년단과 소년단의 상급기관이자 지도기관인 민청을 매개로 이루어지기도 했다.³¹⁾ 해당 시기 북한 당국은 인민 속에 체육을 확산 시키는 데 있어서 민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체육 부문에서도 드러났다. 북한 당국은 “민청단체들은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육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습관을 키우게 하며 인민체력검정에 전체 청소년들을 적극 참가시키도록”한다고 언급하면서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체육의 대중적 발전에 있어 민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³²⁾

학교체육과 관련해 민청과 소년단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교원신문』, 1956년 5월 16일.

31) 소년단은 민청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단체로 “학생들의 학과 학습과 규율의 강화, 사회적 노동 조직, 각종 문화 오락 사업들을 전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광채원, “조선민주청년동맹 연구: 당적 지도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북한 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75쪽.

32) 조남훈, 『조선체육사 2』, 132쪽.

우선 민청의 역할을 보면, 1948년 민청 제3차 대회에서 결정한 규약 제7조는 “본 동맹은 청년들의 전면적문화수준의 향상을 촉진시키며 또 청년들의 체력과 정신을 단련하는 대중적 체육문화를 숭상하여 발전시킨다”고 밝혔다.³³⁾ 1956년 민청 제4차 대회에서 결정한 규약에서는 초급단체의 임무로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다양하고 흥미있는 군중문화체육사업을 광범히 조직”할 것을 명시하였다.³⁴⁾ 각 학교 단위에서는 민청의 기층조직인 초급단체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조직하여 학교체육 사업 및 과외체육 활동을 전개하였다.³⁵⁾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기 중에는 민청 각 초급단체 회의에서 계절별 체육사업의 구체적인 실천 대책을 토의하거나 지난 학교체육 사업을 분석 및 총화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³⁶⁾ 또한 교육문화성 체육처는 각 학교에서 진행되는 인민체력검정에 대한 방침을 내렸는데 여기에서 당국은 사업 시행에 있어 학교와 민청의 연계를 강조하였다.³⁷⁾ 이 방침에 따라 학생 민청과 소년단은 인민체력검정을 비롯한 학교체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교원 민청 초급단체도 인민체력검정에 솔선수범하여 참가하고 학생 전원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토의하였다.³⁸⁾

1950년대는 북한 당국이 경제 복구를 위해 활발하게 건설 사업을

33)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57쪽에서 재인용.

34)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 257쪽에서 재인용.

35)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 268~271쪽.

36) 『교원신문』, 1955년 11월 23일; 『교원신문』, 1959년 10월 7일.

37) 『교원신문』, 1957년 4월 10일.

38) 『교원신문』, 1959년 3월 18일.

실시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기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³⁹⁾ 이런 이유로 특히 방학 기간에 민청과 소년단이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⁴⁰⁾ 이에 부응하여 “방학간에 (...) 민청, 소년단 반사업을 강화하는 데 주의를 돌리며, 교원들은 수시로 부락별로 배치한 학생들과 민청, 소년단 반장들과의 긴밀한 령계를 가짐으로써 그들을 정상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⁴¹⁾ 예를 들어 개풍군 개풍 중학교에서는 동기 방학 기간에 민청과 소년단이 생활반 단위로 매일 아침 운동을 실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²⁾

민청은 방학 동안 계절 운동을 조직하고 여기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였다. 기사는 해산 제1중학교 학생 민청이 동기 방학에 스키와 썰매를 제작하고 스키 운동을 광범히 조직하기 위한 모임을 소개했다.⁴³⁾ 더불어 과외체육 활동 중 하나인 소년단 야영을 민청 주도하에 조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 군 민청 상무 위원회에서는 각 학교에서 추천된 야영생을 비준 및 파견하였는데, 중앙 민청에서는 소년단원의 야영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 야영소 소년단 지도원과 분단 지도원 및 크루쇼크 지도원을 선발하고 실무 강습을 시행하였다.⁴⁴⁾

39) 오덕렬, “전후 복구 시기 북한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52쪽.

40) 『교원신문』, 1958년 1월 15일.

41) 『교원신문』, 1957년 6월 12일.

42) 『교원신문』, 1958년 1월 15일.

43) 『교원신문』, 1955년 10월 8일.

44) 『교원신문』, 1955년 6월 22일.

소년단은 학기 중과 방학 기간에 각종 과외체육 활동의 매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년단은 민청의 지도를 받아 소속 단원이 튼튼한 체력을 갖도록 관련 활동을 조직하는 역할을 했으며 더 나아가 단원을 “장차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았다.⁴⁵⁾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년단원의 의무 중 하나로 체육 활동을 언급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소년단원은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 노동과 국방에 믿음직하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⁴⁶⁾ 이에 따라 소년단의 기본 조직인 ‘단’과 ‘분단’을 중심으로 과외체육 활동을 실시하였다.⁴⁷⁾ 함남 보천군 송봉 인민학교 소년단은 분단별 배구시합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⁴⁸⁾ 평양 제15중학교 학생은 방학을 맞아 “6분단 대 제7분단의 뽀차기 경기를 이미 진행하였고 소년단 빙상 대회 준비를 위한 각 분단 별로 되는 스케트, 썰매 등 각 종목에 걸치는 연습 등을 통하여 동기 방학 간에 체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⁴⁹⁾

조직단체를 통한 과외체육 활동은 민청이나 소년단의 다른 활동과

-
- 45) 민청은 아동의 유일한 단체인 소년단의 창설과 지도를 맡았다. 1946년 5월 30일 민청 위원장 회의에서 김일성은 소년사업이 민청의 가장 큰 과업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소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교양해 계승자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소년단은 민청의 지도를 받아 체육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였다. 차승주, “북한 조선소년단에 관한 연구: 사회통합기제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24~125쪽; 곽채원, “조선민주청년동맹 연구: 당적 지도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158~159쪽.
- 46) 최영실, “북한의 조선소년단 조직생활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3쪽.
- 47) 소년단은 기본 조직인 ‘단’이 있고 그 밑에 ‘분단’이 있다. 분단은 소년단원이 총 10명이 넘는 학급에 만들었으며 소년단원들의 기본 생활 단위였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 생활 전반을 이 분단에 소속되어 생활하였다. 위의 글, 74~78쪽.
- 48) 『교원신문』, 1954년 3월 15일.
- 49) 『교원신문』, 1955년 1월 19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체육 활동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목과의 통합적인 활동이 조직되는 모습을 보였다. 소년단 야영이나 향토 행군, 답사 등이 이러한 성격의 활동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년단 활동 중 하나인 야영에서는 각종 크루쇼크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체육 크루쇼크를 비롯해 문학, 역사, 자연, 미술 등 다양한 크루쇼크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향토 행군이 나 답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체단련이라는 성격에 학생이 방문하는 장소에 대한 역사 교양을 포함하였다.⁵⁰⁾

(3) 학생-교원-학부형-후원단체의 연계

북한의 학교체육은 개별 학교가 운영하는 체육사업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학부형과 학교 후원단체도 사업의 한 구성원으로 포괄하는 특징을 보였다. 주로 학교 내 구성원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면 학부형과 후원단체가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학부형의 경우, 후원단체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체육 사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당국은 이 시기에 학생-교원-학부형-후원단체가 연계하여 학교체육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체육 사업 중에서 학생과 교원, 학부형, 학교 후원단체의 연계를 가장 강조한 분야는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을 갖추는 작업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혜산 제1중학교에서는 “학부형들과 학교 후원 단체의 방조를 받아 초급 중학교에 소요되는 체육 기구 일체를 1년 어간에 제작하여 체육 수업에 활용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⁵¹⁾ 해당 기사는 이 사업에 교원과 학생도 적극적으로 참여

50) 『교원신문』, 1954년 6월 28일.

51) 『교원신문』, 1955년 10월 8일.

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부형과 학교 후원단체의 도움으로 철봉, 평행봉, 평균대, 조마, 그네, 유희대, 배구대, 농구대, 높이뛰기대 등을 마련하였다.

학생-교원-학부형-후원단체가 연계하여 유희 자재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체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등장하였다.⁵²⁾ 이것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후 복구를 해 나가던 북한 당국이 모든 부문에 대해 물질적 보장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 맞게 스스로 복구 건설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남도 양덕 제 5중학교에서는 (...) 후원 단체 및 학부형들과의 긴밀한 연계하여 유희 자재들을 적지 않게 수집하였고 교원, 학생들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하여 축구, 배구, 룡구장 등을 더 잘 만들며 철봉, 목봉, 평균대, 봉대, 특목, 그네, 후보도틀, 조마, 매트, 장애물틀, 유희 의자, 미끌음대, 널뛰기판 등을 더 충분히 갖추기에 노력하였다.⁵³⁾

학교체육 사업 중에서 후원단체에게는 지방 원천을 동원하여 학교의 물질적 토대 마련에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이 강조되었다.⁵⁴⁾ 이렇게 마련한 유희 자재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계절용 체육 기구를 만들었다. 계절용 체육 기구와 관련한 기사는 겨울철에 사용할 스키나 스케이트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도하였다. 예를 들어 량강도 혜산

52) 『교원신문』, 1957년 11월 2일.

53) “우리는 육체 교양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원신문』, 1957년 11월 2일.

54) 『교원신문』, 1954년 8월 2일; 교육도서출판사 엮음,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177쪽 참고.

제1인민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집한 고철을 학교의 후원 단체인 종합 공장 철공반과의 연계 밑에 30여 족에 달하는 스케트를 보장 받았다고” 한다.⁵⁵⁾

앞서 살펴본 체육시설을 갖추는 사업에 더해 학부모에게는 체육사업 논의, 방학 중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 지도, 학교 체육대회 참가, 크루쇼크에서 학생 지도 등과 같은 활동을 요구하였다. 체육사업의 경우 해당 내용을 학부모 회의에서 수시로 토의하고 사업에 나타나는 결함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⁵⁶⁾ 과외체육 사업에서도 “학교에서의 과외 체육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몇몇 사람의 학교 지도 간부나 혹은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한 체육 교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부형 및 학교 후원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호상 일치한 보조를 취함으로써만 이 사업은 옹게 보장된다”고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⁵⁷⁾

방학 기간에는 열성 학부모로 구성된 교외 (학생)생활 지도위원회를 통해 일상적으로 학생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예를 들어 함남도 광천군 동암 중학교에서는 “학부형 및 교외 생활 지도 위원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과 일상 생활을 료해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조기체조, 썰매, 스케트 타기 등 문화적인 휴식을 잘 조직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⁵⁸⁾ 다른 지역에서도 교외 (학생)생활 지도위원회는 학생이 방학 기간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조기체조를 조직하고 학생의 위생 상태 및 몸차림을 점검한 사실을 확인할

55) 『교원신문』, 1955년 12월 28일.

56) 『교원신문』, 1956년 5월 16일.

57) 『교원신문』, 1956년 9월 5일.

58) 『교원신문』, 1960년 1월 16일.

수 있었다.⁵⁹⁾ 이렇듯 학부형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조직하여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때에도 이들을 일상적으로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 체육 활동을 가정과 사회로까지 연장시키고 있었다.

학부형이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모습에 대한 보도도 등장하였다. 학교체육 사업 개선을 다룬 기사는 1년에 2회 이상 계절별로 교내 운동대회를 조직하고 여기에 교직원과 학부형까지 참가하도록 권고하면서 직접적으로 학부형을 교내 체육대회에 참가시킬 것을 언급하였다.⁶⁰⁾ 경기에서 학부형은 장애물 경기 등 각종 운동경기에 참여하였다. 이 외에 체육의 날 행사 일환으로 열린 집단 달리기 행사 개막식에 참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⁶¹⁾

크루쇼크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학부형들을 (...) 학생 크루쇼크 지도에서 방조자로 인입하는 것은 학부형들을 학교와 학생 생활에 더욱 접근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경험있고 재능 있는 학부형들의 방조를 받게 됨으로써” 더욱 친밀한 분위기에서 크루쇼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⁶²⁾ 이 크루쇼크 사업에는 체육 관련 활동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학부형이 학교에서 준비한 체육사업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능동적으로 지도 역할까지 할 것을 기대했다고 하겠다.

59) 『교원신문』, 1960년 8월 24일.

60) 『교원신문』, 1959년 4월 25일.

61) 『교원신문』, 1959년 3월 25일.

62) 『교원신문』, 1955년 1월 10일.

2) 학교체육의 내용적 특징

(1) 소련 체육교육의 도입과 응용

전후 복구 시기 『교원신문』 기사가 묘사한 북한의 학교체육은 소련의 학교체육과 상당히 닮아 있었다. 북한 당국은 해방 직후 소련의 사회주의 체육정책과 기술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육교육 내용도 포함한 것이었다. 1948년 5월 창립한 조소문화협회 연구위원회 산하 조직인 체육분과위원회가 소련의 체육문화를 들여오는 창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⁶³⁾ 체육분과위원회의 위원장(교육성 체육부장)을 비롯하여 상임위원들은 교육성 산하 중앙체육지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 북한의 체육교육이 소련 체육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소련의 체육교육을 직접 언급한 내용도 『교원신문』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북한 당국은 『교원신문』 4면에 ‘소련의 선진 교육 경험 소개’ 코너를 따로 두고, 해당 시기 동안에 꾸준히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다. 1955년 5월 25일자 신문은 “우리 학교의 체육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소련의 학교체육에 대해 보도하였다. 기사는 “매개 빼오네르들이 체육가로 될 때까지 체육 교원들과 상급 빼오네르 지도원과 핵심 빼오네르들은 많은 시간과 로력을 소비해야” 한다고 전했다.⁶⁴⁾

63) 북한 최초의 체육전문 월간잡지인 『인민체육』은 “소련의 사회주의적 우수한 체육문화를 광범히 섭취하고 조선고유의 체육을 소개하는 조소량국간의 체육문화의교류와 아울러 체육을 통하여 소련인민과 조선인민간의 친선을 더욱 굳건히할 목적”으로 조소체육분과위원회를 조직하였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당시 교육성 체육부장이었던 궁선홍이 맡았으며, 부위원장은 말로조브가 맡았다. RG 242, SA 2008, BOX 10, ITEM 122, “소련 체육을 더욱 광범히 섭취-조소체육분과위원회 제2차 총회,” 『인민체육』, 제2권(1949), 15쪽.

64) 『교원신문』, 1955년 5월 25일.

‘삐오네르’ 같은 학생 조직을 활용하여 체육 활동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체육교육과 유사한 모습이었다.⁶⁵⁾ 또한 육상 경기와 체육 대회, 스키와 같은 계절별 운동 종목, 행군 등도 소개하였다. 기사에서 묘사한 활동은 북한의 학교체육 중 과외체육 활동과 흡사했다. 이 부분에서는 앞서 분석한 북한 학교체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소련 학교체육의 어떤 부분을 그대로 도입하고, 어떤 부분을 북한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련은 학교체육의 목적을 “청소년들의 체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노동과 국방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⁶⁶⁾ 이때, 체육교육은 학생의 운동 능력뿐 아니라 용기, 인내심, 집단 의식을 길러 노동과 공공 이익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북한 당국이 학교체육을 통해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갈 건강한 노동자와 군인을 양성하고자 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도 체육교육의 목적과 역할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이익과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북한 당국이 체육의 대중화와 생활화 방침에 근거하여 학생이 일상적인 체육 활동에 참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 점도 소련의 학교체육과 유사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실제 학교체육에서 기본적인 체육교육의 목적에서 더 나아가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하였으며 집단주의를 중

65) 삐오네르(пионер)는 북한의 소년단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소련 어린이의 대중적 조직이다. 삐오네르 조직의 과업은 소련의 학교를 도와서 학생을 “교양있는 또 로동을 사랑하는 용감한 사람으로 그리고 소비트동맹의 훌륭한 공민으로서 배양”하는 것이다. RG 242, SA 2012, BOX 1, ITEM 111, 『삐오네르단 지도원의 수첩』, 북조선 민청중앙교양부 옮김(평양: 청년생활사, 1949), 1쪽.

66) 노먼 슈나이더먼, 『소련의 體育: 소련의 올림픽戰略』, 김창규·유승희 옮김(서울: 東洋文化社, 1985), 48쪽에서 재인용.

요한 가치로 언급하고 있었다.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북한 당국은 혁명전통 교양을 위한 체육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체육교육에 있어서 점차 혁명전통을 강조했던 면모는 북한이 1950년대 중반 이후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했던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 학교체육 사업의 기본이 되는 정규 체육수업부터 비교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련 당국은 보통교육 부문 체육수업을 전 학년에 걸쳐 주 1~2시간의 필수과목으로 배정하였다.⁶⁷⁾ 학생은 건강과 운동 능력에 따라 기초그룹, 예비그룹, 특수그룹으로 나뉘어 수업을 받았다. 교육 내용은 체조, 육상, 스키, 게임, 농구, 배구, 핸드볼, 수영 등이었다. 학년에 따라 저학년 기간에는 체조와 게임 관련 수업이 많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육상이나 운동경기, 선택 용구의 시간이 증가하였다.

북한 당국도 소련의 학교체육과 같이 주 1~2시간 정도를 정규 수업시간으로 배정하였다. 당국은 체육수업 시간에 허약자는 따로 주의를 기울여 보살피야 한다고 언급하였지만 학생의 건강 정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수업을 실시하지는 않았다.⁶⁸⁾ 또한 저학년 학생에게는 유희(게임) 요소가 많은 수업을 실시하는 점은 유사했다. 기본적으로 집단을 단위로 하는 운동경기를 중요하게 실시하는 것은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체조 요소에 비중을 두고 취급한

67) 위의 책, 48~54쪽 참고.

68) 평원군 월일 인민학교 4학년 체육수업에서 허약자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었다. 기사는 교원이 “수업 시작 시에 2명의 허약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허약자들에 대한 수업의 전학 조직과 처리 방법이 미약”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언급을 통해 당시 북한 당국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교원신문』, 1954년 9월 20일.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⁶⁹⁾

북한에서 실시한 인민체력검정은 소련의 GTO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었다.⁷⁰⁾ 소련 당국은 1931년 처음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1934년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⁷¹⁾ 북한 당국도 처음에는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정을 먼저 도입하고 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급수를 추가적으로 만들었다. 북한 당국은 인민체력검정 소년급으로 17세 이하 남자와 16세 이하 여학생을 구분하였다. 당국이 이렇듯 하나의 분류를 사용한 것에 비해 소련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분류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⁷²⁾ 각 분류에 따라 학생에게 요구하는 체력 요건이 달랐다. 그러나 소련의 검정 종목이나 이를 들여온 북한의 검정 종목은 수류탄 던지기 같은 국방체육 종목을 포함한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달리기, 수영, 멀리뛰기, 높이뛰기 등의 종목은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인민체력검정 소년급에는 민족 경기 종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검정에 합격한 학생에게 소련의 경우는 배지를 수여하였다. 북한의 경우 합격 학생에게 휘장을 수여하여 공식적인 명예를 부여한다는 점이 비슷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학교체육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과외체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도 소련의 학교체육 제도를 도입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소련에서 각 학교는

69) 學友書房 譯, 『教育學』(東京: 學友書房, 1966), 220쪽.

70) RG 242, SA 2009, BOX 8, ITEM 44, “인민체력검정을 대중적으로 실시하자,” 『인민체육』, 제4권(1949), 2쪽.

71) 노먼 슈나이더먼, 『소련의 體育: 소련의 올림픽戰略』, 81쪽.

72) 위의 책, 82쪽.

과외체육을 조직할 의무를 가졌다. 이에 따라 체육집단이나 클럽이 주도적으로 체육 활동을 조직하고 체육교사가 직접적으로 이를 지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⁷³⁾ 체육집단은 학생이 북한의 인민체력검정에 해당하는 GTO 프로그램에 합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역할도 병행하였다.⁷⁴⁾ 앞서 살펴본 과외체육 활동은 북한에서 조기체조, 업간체조, 소년단 체육 활동, 체육 크루쇼크 활동 등의 형태로 도입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체육단과 소년단 체육소모임, 체육 크루쇼크가 북한식 GTO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인민체력검정의 훈련을 실시한 점도 유사하였다.

(2) 체육교육과 사상교육의 결합

북한 당국은 체육교육의 목적을 “우리 후대들을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애국주의적 고상한 정신의 소유자로 교양 훈련하며 그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그들에게 용감성, 견인성, 기민성, 명량성 등의 고귀한 품성과 곤난극복의 정신 및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⁷⁵⁾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체육교육을 단순히 학생의 신체 단련을 위한 방법으로 여기는 대신 애국주의와 집단주의 같은 사상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전후 복구 시기 발간된 『교원신문』 학교체육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상교양의 내용은 앞서 나온 애국주의와 집단주의를 비롯하여 민족주의, 혁명전통 교양이었다. 학교체육

73) 위의 책, 50쪽.

74) J. Riordan, *Sport in Soviet society: development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in Russia and the USSR*(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7), pp.128~130.

75) 『교원신문』, 1955년 4월 13일.

기사는 이와 같은 사상교양을 통해 학생이 사회주의·공산주의 도덕을 익힌다고 밝혔다. 혁명전통 교양을 제외한 사상교양은 해당 시기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혁명전통 교양에 대한 내용은 1959년 이후부터 등장하였다.

전후 복구 시기 학교체육 활동에는 사상교양 내용 중 다수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과외체육의 하나인 행군은 기본적으로 소년단 분단이나 반을 단위로 행과 열을 지어 집단적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집단주의를 내면화하는 기회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북한 당국은 행군이 학교 주변의 명승지나 고적을 방문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향토애와 조국애를 기르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⁷⁶⁾ 당시 실시한 체육 활동이 하나의 사상교양 내용을 담고 있다고 재단할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각각의 교양에 해당하는 가장 특징적인 활동을 위주로 살펴본다.

정규 체육수업의 경우 주 교재 수업에 앞서 질서운동과 도수체조 등을 실시했다. 해당 활동을 통해 학생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본인이 속한 행과 열에 맞추어 확일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평양 제3중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실습에서는 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서운동에서 “학생들의 바른 자세와 민속 정확한 동작을 유지하면서 <2렬 횡대에서 4렬 횡대로, 4렬 횡대에서 2렬 횡대로>의 대렬 형성과 <정보 행진으로부터 평보 행진, 평보 행진에서 정보 행진>에 대한 행진 변환 동작을 연습”하였다.⁷⁷⁾ 동작은 대렬 앞에 선 교원의 구령에 맞추어 실시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런 과정은 학생이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76) 『교원신문』, 1954년 3월 22일.

77) 『교원신문』, 1956년 9월 5일.

집단주의 규율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업 사례는 이를 좀 더 분명히 드러낸다. 평양 제10중학교 인민반에서 진행한 시범수업에서 담당 교원은 ‘뿔을 다리 아래로 보내기’ 유희를 진행하였다. 경기 결과를 통해 학생이 규율과 질서를 잘 지킬 경우 높게 평가하였다. 기사는 “이와 같은 승부에 대한 평가로 학생들은 규율이 강한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 받는다고” 전했다.⁷⁸⁾

체육수업은 학생이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갖도록 애국주의를 심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체육 수업에서 도덕 교양의 과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기사는 고급중학교에서 실시한 ‘조마를 가로 놓고 팔 짚고 무릎 굽혀 오르기와 내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수업에서 교원은 전쟁 영웅의 이야기를 가져와 설명함으로써 학생도 그 영웅처럼 조국을 위해 언제든지 나서서 싸울 수 있는 건강한 학생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고급 중학교 1학년 여자 학급에서 지지 조약에 <조마를 가로 놓고 팔 짚고 무릎 굽혀 오르기와 내리기>의 교재를 취급할 때 준비 정도가 낮은 녀학생들은 흔히 무서워한다 (...) 이때 만약 교원이 <리수복 영웅은 조국을 위하여 화구도 몸으로 막았는데 이것을 무서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다면 그 녀학생은 자기의 소극성을 부끄러워 하고 즉시 대답해질 것이다. 또한 이와 결부시켜 체육을 통하여 교양 훈련 받은 수많은 건전한 청년 남녀들은 미제를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의 무궁한 조국애를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는

78) 『교원신문』, 1955년 12월 7일.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기도 씩씩하게 자라 조국의 운명과 번영을 위해 훌륭히 싸우겠다는 결의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원은 체육 수업을 통하여 당의 부름에 의하여서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동원될 수 있도록 자기의 신체를 더욱 단련하여야 하며,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극복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⁷⁹⁾

해당 시기 과외체육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았다. 각종 집단 유희, 등산과 원족, 행군, 사냥, 야영, 체조와 집단 달리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활동은 집단을 단위로 이루어졌고 개인 영웅주의를 지양할 것을 주지시켰다. 이를 통해 학생이 일상적으로 집단 의식을 내면화하도록 교양했다. 『교원신문』 학교체육 기사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운동경기와 체육행사도 단체를 기본 단위로 실시하는 활동이었다. 운동경기로는 축구, 농구, 배구, 피구와 같이 여러 학생이 협동심을 바탕으로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구기종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체육행사는 평양시, 자강도, 평북도, 함남도와 같이 도 단위로 해당 지역의 학교가 모두 한 팀에 소속한 상태로 경기에 나섰다. 또한 체육대회와 인민체력검정, 유희 시간에도 각종 민족 경기를 조직하여 학생이 평소에 민족에 대해 인식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195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혁명전통을 강조하는 체육 활동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시기인 동시에 대내적으로

79) 『교원신문』, 1958년 4월 23일.

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권력집중이 진행되던 때였기 때문에 해당 시기의 혁명전통의 내용은 주로 ‘혁명전통=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강조로 이루어졌다.⁸⁰⁾ 이에 따라 각지 학교에서 학생의 체력 증진과 혁명전통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보천보에로의 달리기’, ‘보천보에로의 집단행군’, ‘만경대에로의 달리기’, ‘만경대에로의 집단행군’ 등을 조직하였다.⁸¹⁾ 활동에 대해 내각 직속 체육지도위원회는 “현 시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집단적 달리기 운동을 계속 조장 발전시키며 혁명 전통 교양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연간 달리기 지표에 준하여 정상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⁸²⁾ 달리기와 행군이 끝나면 총화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는 귀환보고를 실시하고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발표회를 열었다. 인민체력검정 주간에 달리기 운동과 집단행군을 활발히 조직하였으며 이 기간 외에도 연중행사로 실시하였다.

체육 활동과 혁명전통 교양의 결합은 8·15 해방 기념행사 같은 전국적 규모의 체육축전에서 실시한 집단체조에서도 드러났다. 8·15 해방 14주년 경축 전국 학생소년 체육축전을 보도한 기사는 집단체조에 참여한 학생이 집단적인 체육 운동을 통해 김일성과 노동당의 혁명전통을 형상화하였다고 전했다.⁸³⁾ 또한 각지 학교에서는 혁명 전적지, 전쟁 전적지, 명승 고적지 등을 답사하면서 학생에게 혁명전통을 주제로 교양하였다. 독립적으로 답사를 꾸리지 않고 학교나 소년단

80)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46~52쪽 참조.

81) 『교원신문』, 1959년 3월 7일.

82) 『교원신문』, 1959년 4월 25일.

83) 『교원신문』, 1959년 8월 16일.

야영에서 답사 및 행군을 조직하는 모습도 보였다.⁸⁴⁾

(3) 국방체육·민족체육의 보급 및 장려

국방체육과 민족체육은 북한 체육의 특징을 서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다. 전후 복구 시기에도 북한 당국은 체육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체육과 민족체육을 보급하고 장려하는 모습을 보였다.⁸⁵⁾ 이것은 학교체육 부문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각지 학교에서는 학생이 각종 국방경기와 민족경기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였다. 국방체육은 체육교육 대상인 학생으로 하여금 애국주의 정신과 용감성, 대담성을 길러주고, 민족체육은 학생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⁸⁶⁾ 학교체육 부문에서 국방체육과 민족체육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국방체육은 “인민들을 조국 보위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체육활동”이다.⁸⁷⁾ 국방체육의 성격을 띤 학교체육 활동은 행군, 사냥, 소년단 및 학교 야영, 산야 횡단 경기, 원거리 달리기 등이다. 각종 구기종목 운동과 민족경기 등을 제외한 과외체육 활동 대부분이 국방체육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활동은 공통적으로 해당 집단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목표를 성취하는 집단 활동이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투, 승리, 숙영, 중대·소대·분대 같은 군대식 표현을 차용하여 과업을 묘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84) 『교원신문』, 1960년 7월 13일.

85) 홍성보,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 과정(1945~1970):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134~136쪽.

86) 성문정, 『북한의 체육실태』, 40~41, 75쪽.

87) 위의 책, 21쪽.

어린 시절부터 접하는 군대식 문화는 향후 학생이 직장이나 군대 등 어떤 조직에 속하든지 그 조직을 이끄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훈련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체육에 해당하는 실제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당국은 방학 기간에 다양한 과외활동을 조직하였는데 행군이나 사냥과 같은 활동은 군대의 조직처럼 대대, 중대, 소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교원신문』은 평원 제 3중학교 학생과 교원 약 400여 명이 3중대 8소대로 조직하여 너구리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도하였다. 이 학교는 “각 분대, 소대별로 각각 자기 담당 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알맞도록 역량 배치”를 하였는데 “1, 2중대인 300명은 주로 산기슭에서 포위하도록 하고 3중대인 100여명 학생들은 직접 산속으로 뛰어들어 너구리를 몰아내도록” 하였다.⁸⁸⁾ 기사는 이와 같은 사냥이 ‘조직적 훈련’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또 다른 사례로 각종 행군이 있다. 겨울철 눈 위에서 이루어지는 설상 행군 등 계절별로 여러 종류의 활동을 실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956년 2월에 나온 내각 명령 제 14호 ‘체육 및 스포츠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는 민족체육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민족적 전통과 풍습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것을 계승 및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⁸⁹⁾ 이에 따라 각 시, 군은 궁술장, 씨름장, 그네장 등을 설치하였다.⁹⁰⁾

민족체육이 인민체력검정 사업과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기사는 평양 제5고급 중학교에서 “인민 체력 검정

88) 『교원신문』, 1955년 1월 15일.

89) 『로동신문』, 1956년 4월 1일.

90) 『교원신문』, 1956년 3월 10일.

종목들에 씨름, 궁술 등 민족 체육 종목들을 배합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원들이 담당 학급의 과외 체육 활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고 보도하였다.⁹¹⁾ 1959년에 도입한 인민체력검정 주간에는 “각종 민족 체육을 내용으로 하는 대항 경기들을 광범하게 진행”하였다.⁹²⁾ 또한 8·15 해방 기념 전국 학생 체육 축전 같은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에서 널뛰기, 그네, 씨름 등 민족 경기를 육상이나 축구, 배구 등과 같이 주요 경기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체육행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훈련하는 모습을 보도한 기사도 나왔다. 해당 기사는 “운동장 한 모퉁이에서는 씨름, 그네, 널뛰기 등 민족 경기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의 미더운 모습도 찾아보게 되는 바, 그들은 지방의 일반 단체 선수들과 경험을 교환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고 전했다.⁹³⁾

전후 복구 시기 북한 당국은 오늘날 북한 체육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체육과 민족체육에 해당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런 활동은 정규 체육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과외체육 시간까지 학교 체육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논문은 전후 복구 시기 북한의 보통교육 부문 학교체육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먼저 북한 학교체육의 형식적 특징을 정리한 내용은

91) 『교원신문』, 1959년 3월 14일.

92) 『교원신문』, 1959년 3월 11일.

93) 『교원신문』, 1959년 7월 15일.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당국이 체육 정책 전반의 노선으로 설정한 체육의 대중화와 생활화 방식이 학교체육 정책에도 녹아있음이 나타난다. 각지 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학기와 방학, 수업과 과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체육 활동을 조직하였다. 이것은 1950년대 후반 천리마운동의 영향으로 집단 달리기와 같은 군중체육의 성격을 더하였다. 둘째, 민청과 소년단 조직단체를 매개로 학교체육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청과 소년단에 소속된 교원과 학생은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의무를 가졌다. 민청은 소속 학생뿐 아니라 하급 기관인 소년단 단원이 각종 과외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의무를 갖고 이를 수행하였다. 셋째, 학교체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학교 후원단체의 연계가 이루어졌다. 북한 당국은 각지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학교 후원단체가 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에 더해 과외활동에서 학생을 지도하거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였다.

전후 복구 시기 북한 학교체육의 내용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 당국은 소련의 학교체육으로부터 체육교육의 목적 및 기본 원칙을 비롯하여 정규 체육수업과 과외체육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도입하였다. 북한 체육의 기준이 되는 인민체력검정 제도 역시 소련의 GTO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체육 활동의 성격에서 소련과 다르게 북한의 학교체육은 집단주의와 민족주의를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북한의 학교체육은 체력단련뿐 아니라 사상교양의 역할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후 복구 시기에는 애국주의, 집단주의, 민족주의 등이 주요 사상교양의 내용을 차지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는 혁명전통에 대한 교양과 결합한 체육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북한 체육의 특징 중 하나인 국방체육과 민족체육을 보급하고 장려하는 모습을 1950년대 학교체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군대식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였으며 각종 민족경기를 통해 조선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전후 복구 시기 북한의 학교체육은 북한 당국이 밝혔듯이 ‘건강한 노동자와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것은 체육의 대중화와 생활화 및 군중화, 조직단체의 활용, 학생과 교원을 비롯한 학부모, 후원단체의 연계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민을 양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체육교육의 틀 안에 애국주의, 민족주의, 집단주의, 혁명전통 같은 사상교양의 내용을 담아냈다. 이것은 북한 당국이 오늘날까지 강조하는 국방체육과 민족체육을 해당 시기에 정규 체육수업에서는 물론 각종 과외체육 활동에서도 장려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밝힌 전후 복구 시기 북한 학교체육의 특징은 이후 북한 체육교육의 특징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후 복구 시기 이후에도 북한 당국은 학생을 국방과 노동에 준비시킨다는 목표 아래 체육교육을 실시하였다.⁹⁴⁾ 학교체육은 여

94) 나영일·안지호·현주·신영진·진현주·성제훈, 『북한의 체육 및 여가활동: 단천지역을 중심으로』(2012년 서울대학교 통일학 자유과제 공동연구 최종보고서,

전히 학생을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것이었고 용감성, 대담성, 강인한 투지와 인내성을 배양하는 교육이었다. 이러한 학교체육은 북한 역사에서 주체사상이 전면에 등장한 이후에 ‘주체형 혁명인재’를 키우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⁹⁵⁾

본 논문은 북한 연구 자료의 제한성으로 신문기사만을 주요 분석 자료로 삼아 전후 복구 시기 학교체육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이 『교원신문』 학교체육 기사가 보여주는 교육 현장의 모습을 일부 드러내고자 시도했으나 이것이 당시 실시한 교육의 현실을 모두 반영한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교원신문』은 북한 당국의 교육 정책과 그 의도를 선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사 내용의 행간을 읽어 당시 학교체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점도 지닌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시기별 북한 학교체육의 실상과 변화 과정, 초등교육을 비롯한 중·고등교육에서 수행하던 체육교육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접수: 11월 1일 / 수정: 11월 18일 / 채택: 12월 1일

2013), 79~89쪽; 성문정, 『북한의 체육실태』, 23~27, 34~45쪽; 이학래·김동선, 『북한의 체육』, 103~134쪽; 이학래·김동선·김현석·이희근·박승범, 『남북한 체육행정 비교연구』, 159~183쪽 참고.

95)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20: 체육』, 102쪽.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교육도서출판사 편,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김상현·김광현, 『대중 정치 용어 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20: 체육』(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8).

조남훈, 『조선체육사 2』(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2).

學友書房 엮음, 『教育學』(東京: 學友書房, 1966).

_____ 엮음, 『体育教授法』(東京: 學友書房, 1966).

2) 신문

『교원신문』(1954~1960).

『로동신문』, 1956년 4월 1일.

3) 기타자료

RG 242, SA 2008, BOX 10, ITEM 122, “쏘련 체육을 더욱 광범히 섭취-조쏘 체육분과위원회 제2차 총회,” 『인민체육』, 제2권(1949), 15쪽.

RG 242, SA 2009, BOX 8, ITEM 44, “인민체력검정을 대중적으로 실시하자,” 『인민체육』, 제4권(1949), 2쪽.

RG 242, SA 2012, BOX 1, ITEM 111, 『뻬오네르단 지도원의 수책』, 북조선 민청중앙교양부 옮김(평양: 청년생활사, 1949).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형찬 엮음, 『북한의 교육』(서울: 을유문화사, 1990).

성문정, 『북한의 체육실태』(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슈나이더먼, 노먼(Shneidman, N. Norman), 『소련의 體育: 소련의 올림픽戰略』, 김창규·유승희 옮김(서울: 東洋文化社, 1985).

이학래·김동선, 『북한의 체육』(서울: 사람과 사람, 1995).

이학래·김동선·김현석·이희근·박승범, 『남북한 체육행정 비교연구』(서울: 광림북하우스, 2007).

이향규·김기석, 『북한사회주의 형성과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1999).

이향규·조정아·김지수·김기석,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서울: 교육과학사, 2010).

2) 논문

공기화, “북한의 학교체육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 논문집』, 제31권 1호(1995), 291~314쪽.

공기화·김수봉, “남북한 간의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비교연구,” 『초등교육연구』, 제21권(2006), 95~144쪽.

곽채원, “조선민주청년동맹 연구: 당적 지도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김남주, “남북한 체육교육 분석을 통한 이질화 극복방안”(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김동선, “북한 체육의 기본원리와 특성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김중수, “북한 ‘청년동맹’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홍태·김동선, “남북한 학교체육의 특성 비교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5권 1호(2006), 461~473쪽.

김희수, “남북한 간의 체육교육과정 비교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16권(2010), 105~149쪽.

나영일·안지호·현주·신영진·진현주·성제훈, 『북한의 체육 및 여가활동: 단천지역을 중심으로』(2012년 서울대학교 통일학 자유과제 공동연구 최종보고서, 2013).

박진권, “남북한 학교체육의 비교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제7권 1호(1998),

433~448쪽.

신문선·김남주, “북한 고등중학교 체육의 성격 및 특징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1권 1호(2002), 155~166쪽.

신효숙,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統一政策研究』, 제15권 1호(2006), 137쪽.

오덕렬, “전후 복구 시기 북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은정, “북한의 학교체육 관련 신문기사 내용분석”(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종목, “남북한과 일본의 체육과 교육과정에 관한 비교연구”(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장경표, “남북한 초등(인민)학교 체육교육에 대한 비교연구”(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차승주, “북한 조선소년단에 관한 연구: 사회통합기제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최영실, “북한의 조선소년단 조직생활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현주·김동선, “북한 청소년들의 과외체육소조 활동의 변화,” 『체육사학회지』, 제19권 2호(2014), 159~174쪽.

홍성보,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 과정(1945~1970): 국가전략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 국외 자료

1) 단행본

J. Riordan, *Sport in Soviet society: development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in Russia and the USSR*(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7).

A study on Physical Education
of Primary·Secondary School in North Korea
during Post-war Rehabilitation Period

Lee, Sungsoo(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in the section of general education in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articles in the education-specialized newspaper, *Kyo-won Shinmun*, during post-war rehabilitation period. This study reconstructs the aspects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of the 1950s in which socialist education strengthened its basis in North Korea. Based on this materials,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ultivating ‘fully developed communist’ which was the objective of physical education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to examine the initial aspects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established as ‘the thesis of the education of socialism.’ To conclude,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onstructed and managed

school physical education to attain the goal of fostering ‘fully developed communist’ by analyzing the newspaper articles in *Kyo-won Shinmun* with the categories of formal characteristics and its contents. It was identified that such trend eventually resulted in the ideology and principle of education in North Korea.

Keywords: physical education, post-war period, North Korea, Kyo-won Shinmun, fully developed communist